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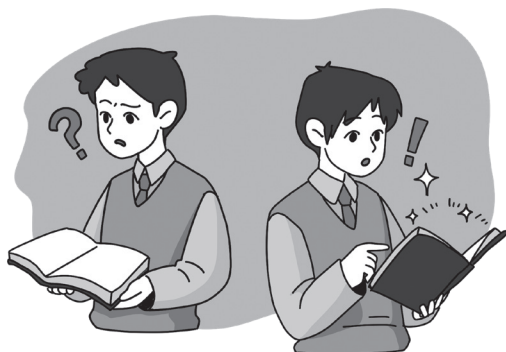
국어 1등급을 정말 원한다면

문학편



“

세상에는 딱 2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문학을 읽을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96%의 사람들은 문학을 읽지 못한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만 보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활자 뒤에 펼쳐져 있는 ‘세계’를 보지 못한다.
단 4%의 사람들만이 ‘세계’를 본다.

계속 글자만 보고 있을 텐가, 아니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겠는가?

”

CONTENTS

CHAPTER I : 공부법

1. 수능에 왜 '문학'을 내는 거지? | 17p
2. '내면세계 공감'의 구체적 의미 | 21p
3. '이미지화'의 구체적 의미 | 23p
4. 출제자는 왜 '감상 능력'을 기르라고 말하는 걸까 | 26p
5. 모든 문제는 사실 '이 2가지'만 물어보고 있다. | 27p
6. 문학 공부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TOP 9 | 28p

CHAPTER II : 기출적용편

1. 시 ·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시 읽는 법 | 40p

1-1. 현대 시

- 2015학년도 6월(B형) 「와사등」, 「울타리 밖」 | 45p
- 2022학년도 6월 「연륜」, 「대장간의 유혹」 | 64p
- 2013학년도 9월 「또 다른 고향」, 「자화상·2」 | 78p
- 2014학년도 9월(B형) 「생명의 서·일장(一章)」 | 86p
- 2016학년도 9월(B형) 「꽃덤불」 | 91p
- 2017학년도 6월 「향현(香峴)」 | 93p
- 2018학년도 수능 「강 건너간 노래」, 「묘비명」 | 96p
- 2018학년도 9월 「플라타너스」, 「달」 | 108p
- 2021학년도 6월 「산상의 노래」, 「나무의 수사학 1」 | 119p
- 2014학년도 수능(B형) 「파초우(芭蕉雨)」, 「사평역(沙平驛)에서」 | 130p
- 2022학년도 수능 「초가」, 「거산호 2」, 「담초(談艸)」 | 143p
- 2013학년도 9월 「떨치」 | 158p
- 2019학년도 6월 「우포늪 왓새」 | 163p
- 2015학년도 수능(B형) 「고향 앞에서」, 「낮은 집」 | 169p
- 2018학년도 6월 「고풍 의상」 | 177p
- 2016학년도 수능(B형) 「아침 이미지 1」 | 182p
- 2011학년도 수능 「선제리 아낙네들」, 「그 나무」 | 185p
- 2009학년도 9월 「꽃밭의 독백 - 사소 단장」, 「나무를 위하여」, 「만언사」 | 193p
- 2023학년도 6월 「향아」, 「전문가」 | 206p
- 2023학년도 9월 「별 - 금강산시 3」, 「길」 | 215p
- 2024학년도 6월 「맹세」, 「봄」 | 226p

- 2025학년도 6월 「청산행」, 「사실과 관습 : 고독 이후」 | 243p
 - 2025학년도 9월 「북방에서 - 정현웅에게」 | 260p
- #### 1-2. 고전 시가
- 고전 시가 접근법 | 267p
 - 2022학년도 9월 「규원가」, 「작자미상」 | 270p
 - 2022학년도 수능 「탄궁가」, 「농가」 | 280p
 - 2021학년도 6월 「관동별곡」 | 289p
 - 2020학년도 9월 「상춘곡」, 「고산구곡가」 | 300p
 - 2019학년도 9월 「한거십팔곡」 | 311p
 - 2021학년도 수능 「사미인곡」 | 316p
 - 2020학년도 수능 「월선헌십육경가」, 「어촌기」 | 322p
 - 2020학년도 6월 「유원십이곡」 | 333p

2. 소설 · 배우고 나면 별거 아닌, 소설 읽는 법

| 342p

2-1. 현대 소설

- 2017학년도 6월 「삼대」 | 347p
- 2019학년도 9월 「비 오는 길」 | 360p
- 2021학년도 수능 「사막을 건너는 법」 | 372p
- 2022학년도 6월 「무사와 악사」 | 384p
- 2022학년도 예비 시행 「무정」 | 398p
- 2024학년도 수능 「골목 안」 | 410p

2-2. 고전 소설

- 고전 소설 접근법 | 431p
- 2018학년도 수능 「사씨남정기」 | 435p
- 2022학년도 수능 「박태보전」 | 446p
- 2020학년도 수능 「유씨삼대록」 | 458p
- 2025학년도 수능 「정을선전」 | 470p

3. 극 · '이거' 하나만 주의하면 된다, 극 읽는 법

| 490p

3-1. 시나리오

- 2017학년도 9월 「독 짓는 늙은이」 | 493p
- 2019학년도 수능 「천변풍경」, 「오발탄」 | 506p

3-2. 희곡

- 2009학년도 9월 「파수꾼」 | 519p

CHAPTER III : 점검

이 책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

1. 신은 망가뜨리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자만'을 불어 넣는다. | 529p
2. 친구가 많은 학생이 문학을 잘한다. | 530p
3. 내가 문학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1초 만에 점검하는 법 | 530p
4. 모든 책은, '다시' 읽을 때 다른 책이 된다. | 531p
5. 흐릿한 세상을 닦아내는 힘. | 532p



국정원 독자들의 생생한 후기

* 단 한 글자도 조작하지 않은 실제 후기입니다.

박OO (3등급 → 1등급)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명	생년월일	성
박		
한국사	국어	수학
	언어와 매체	미적분
	136	122
	99	
	1	

국정원은 수능 국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학습이 무엇인지 또한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국정원을 접하기 전에는 독서 지문을 풀 때,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많이 사용하여 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글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문제를 풀 때 그 표시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 이런 습관에 대한 조언이 나와있었고, 그 조언대로 공부한 뒤부터는 독서에서의 오답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글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해결책이었던 것이죠. 국정원 문학편에서는 화자에 감정 이입하여 내면세계를 파악하라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에는 문학 작품을 읽어도 선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허다해 작품을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세계를 그리면서 읽어가니 작품으로 돌아와 다시 읽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손OO (4등급 → 1등급)

한국사	국어	수학
	화법과 작문	기하
	126	
	96	
3	1	
86,652	384,362	

국정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주 자세한 해설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유명한 기출 문제집들도 해설이 아예 상세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타 책들은 어딘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의 정답은 자세하게 해설이 되어있지만 오답들은 해설이 되어있지 않음, 해설이 된 부분도 혼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등) 그러나 국정원은 모든 선지 하나하나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 되어있기 때문에 저처럼 독해력이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있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은 귀신같이 원래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범작가님의 코멘트가 있어 정말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만든 책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성적표를 보면 알겠지만 22, 23수능을 응시했고 두 시험 모두 국어 4등급을 받았습니다. (모고도 4~5였습니다) 그렇게 반수 실패 후 복학해 학교생활을 하다 수능에 미련이 생겨 1년 휴학 후 한번 더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어는 3월부터 시작해 다른 강사 분의 강의를 듣고 문제를 푸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5년도 6월 모의고사의 결과는 낮은 3등급으로 그제서야 공부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범작가님의 영상 하나를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영상의 내용은 정확히는 기억 안나지만 대략 국어 만년 4등급의 특징이었고 눈으로 빠르게 훑고 이해했다고 생각하기, 대충 읽고 와리가리치기(...)등등 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속에서 설명하는 만년 4등급의 모습이 정확히 저와 같다는 생각을 했고 책 값도 저렴해서 속는 셈 치고 한번 구매해보자! 해서 국정원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는 제 수험생활 중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윤OO (3등급 → 1등급)

문학편에서는, 내면세계를 계속 제시해주신 게 가장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전 항상 문학에서 많이 틀리고 문학을 감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감상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책에서 나오는 내면세계를 정리해 따로 계속 익히니 이번 수능 문학에서는 하나만 틀렸습니다. 그리고 해설에서 어떤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읽어야 한다며 길을 제시해주신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따로 노트에 정리해가며 글에 대한 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점점 국어 성적이 떨어지며 3모 때는 3, 6모 때는 2점에 걸쳤었습니다. 8월부터 최저 때문에 국어와 탐구만 잡고 달린 결과, 수능에서는 백분위 100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	국어
	언어와 매체
	137
	100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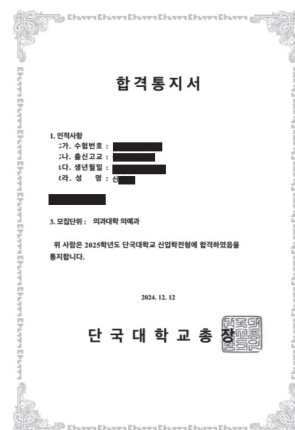
(문학)

1. 내용 부분을 읽고 감상 방법을 정리한다
2. 문학 지문을 읽기 전 어떻게 감상할 지 정리한 걸 읽으며 상기한다
3. 문제를 풀고, 답을 확인한다
4. 다 푼 후 지문으로 돌아와 내면세계가 원지, 뭘 바라보고 있는 건지 다시 고민한다
5. 뒤 해설을 읽으며 깨달음을 얻은 부분을 정리한다
6.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면세계들을 종이에 정리하여 내면세계 모음집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정말 실력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라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OO (3등급 → 1등급)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반 또는 졸업 연도)		
	신					
영역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표준점수		136				
백분위		99				
등급		1				



이번 수능 성적과 대학합격증 보내드려요! 작가님께서 항상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최OO (3등급 → 1등급)

영역	한국사	국어
과목		화법과 작문
점수		131
순위		96
등급	2	1

모의고사 보면 독서에서 주로 틀려서 보통 3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 6, 9모의고사도 3등급이고요. 그래서 독서를 어떻게 할지 커뮤니티를 돌아보다가 국정원을 알게 되어서 유튜브를 봤는데 국어 공부법 영상에서 하신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다른 국어 독서 독학책을 본 적은 없고 인강을 들은 적은 있는데 지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강사의 방식을 터득해야 했는데 국정원은 미리 글읽기 방법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다 그리고 인강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걸 알려주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한문장 한문장 자체가 이해조차 안되는 데 그걸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 어느정도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글을 이어읽고 세부정보를 분류하고 이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국정원은 질문하기, 추상어 감지하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강OO (4등급 → 1등급)

영역	선택과목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한국사	-	-	-	
국어	화법과 작문	131	96	1

시중에 다른 문제집이나 강의들은 문제위주의 학습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국정원은 수능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독해 위주의 학습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워자마자 들었고 그 점이 다른 문제집과 강의들과 차별화된 점 같아서 한번 믿고 따라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선택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은 독서편과 문학편 둘다 독해하는 방법과 공부할 때 어떤 실력을 길러야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간을 재지 말고 독해 실력을 기르라는 부분이 수험 생활 내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읽기만 해도 국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거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국정원의 방법들을 스스로 독해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때까지 국정원에 있는 기출로 연습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방법을 완전히 내것으로 만들면 처음보는 지문을 읽어도 흔들림없이 자신의 실력이 나오는 것을 수많은 모의고사와 사설들을 보며 체감했습니다. 저는 현역으로 처음엔 국어 낮은 3~4등급이었지만 1년동안 국정원 문학편과 독서편을 각각 2~3번씩 정독하고 기출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푸는식으로 해서 다른 강의나 학원의 도움없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김OO (3등급 → 1등급)

한국사	국어	수학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134	123
	98	89
1	1	2

내가 하고있었던 성적이 오르지 않는 공부법을 정확하게 책에서 서술하고 있어서 신뢰가 갔다. 수험생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일단 글을 읽는 방법들을 정독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고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해보기. 그리고 국정원에 있는 지문들을 그 방법대로 끝까지 스스로 고민해보며 훑어보기. 그리고 뒤에 있는 해설을 보며 내가 했던 사고과정과 비교해보기. 이 과정을 여러번 거친다면 뒤로 갈수록 점점 해설과 비슷하게 지문을 훑을 수 있을겁니다!

문00 (2등급 → 1등급)

그동안 애매하게 알고 있던 지식을 글로 정리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어의 대원칙을 제시해 국어공부의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점이 가장 기존의 책과 다른점이자 좋은점입니다. 저는 1,2학년때 1등급 3학년때는 1~2등급이 나왔습니다. 국어를 못하진 않지만 저에게 여전히 국어는 불안하고 잘 모르겠는 과목이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때 왜 국어를 잘하는지, 문제는 어떻게 푸는건지,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건지에 대해 대답하지 못했고 그냥 감의 영역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감으로 푸는 것의 문제점은 풀이가 일정하지 않고 불안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을 저만의 규칙이 있으면 긴장이나 컨디션에 상관없이 일정한 성적을 낼 수 있는데 그렇게 없으니 계속 불안에 시달렸으며 문제도 잘 풀릴때는 잘 풀리고 안 풀릴때는 안 풀렸습니다. 국정원의 좋은 점은 그렇게 감의 영역으로 남겨둔 부분을 글로 정리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책에서는 국어 전체에 적용되는 원칙을 제시하기보다 갈래별로 방법을 따로 제시하고 또 잡다한 도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맞게 하는건지, 글을 이해하는 하고 있는건지와 같은 물음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전체 대원칙을 제시하기 때문에 국어 전반을 공부할때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수험 생활을 하다보면 단순히 감에 의존한 공부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책으로 정리되어있으니 제가 그동안 애매하게 알고 있던것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주기적으로 다시 꺼내보며 제 공부방향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	국어	수학
	언어와 매체	미적분
	132	
	97	
	1	

앞쪽에 있는 대원칙과 뒤쪽에 있는 충분한 양의 실전적용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책 내용 전부가 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ㅎㅎ 앞쪽에 있는 대원칙은 제 국어공부 전반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긴 수험생활동안 제가 흔들릴때마다 이 책을 다시 꺼내보며 국어공부 방향을 점검할 수 있었고, 정확하게 글로 원칙이 정리되어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을 나만의 규칙을 세워 불안에 떨지않고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책으로 정리가 되어있으니 언제든지 다시 꺼내 간단하게 읽을 수 있다는점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뒤쪽에 있는 실전적용은 그렇게 만든 규칙을 연습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규칙을 세우고 혼자 연습을 하면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게 맞는지 의심을 들때가 있는데 실제로 국어 지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줄한줄 코멘트가 달려있어서 쉽게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점은 모든 문장에 코멘트가 달려있다는 점과 수록되어 있는 지문 양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문장에 코멘트가 달려있으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코멘트가 원칙을 어떤식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연습하고 체화시키는 것도 훨씬 쉬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갈래의 글이 넉넉하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국정원과 기출을 번갈아가며 공부하면서 국정원 1회독에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그 후 회독에서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점점 나만의 규칙과 사고를 정교하게 교정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과 기출문제집을 준비해 국정원을 1회독 한 후 기출문제집을 푼다. 당연히 1회독으로는 실력이 늘지 않기에 기출문제집을 푸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서 계속 시도하고 부딪치고 깨져본후 국정원을 다시 보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겹돌던 규칙이 흡수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정원->기출->국정원->기출을 계속 반복하며 공부를 해줍니다. 국어는 생각을 많이 해볼수록 실력이 늡니다. 설령 답을 내리지 못하고 답지를 본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국어 실력이 늡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순간 무언가 궤도에 올랐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는 계속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딪치고 실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정원과 기출문제집을 계속 번갈아가며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00 (3등급 → 1등급)

영역	한국사	국어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표준점수		134
백분위		97
등급	■	1

저는 지난 수능 국어를 준비하며 국정원을 통해 비약적인 성적 향상을 겪었습니다. 국정원을 접한 후 문학-비문학편, 상상모의고사 콜라보까지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이전까지 3등급이었던 국어 등급이 당해 수능 때에 1등급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독해스킬’ 같은 것이 아닌 이미지화나 내면세계 공감 같이 실제로 체화할 수 있는 습관들을 알려주면서, 이를 직접 과외하는 것처럼 쓰여진 어체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독학으로 공부하는 학생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국어를 잘하게 하는 것을 넘어 국어를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정00 (4등급 → 1등급)

영역	한국사	국어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표준점수		136
백분위		98
등급	■	1

현역시절과 재수시절때 제 국어 실력은 들쭉날쭉이었습니다. 1등급이 나올때도 있었고 4등급이 뜨기도 했습니다. 어렵듯이 국어는 이해와 감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지만 화려한 스킬을 보여주는 동네 학원이나 인강 강사들의 말을 믿으며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 결과 현역과 재수 국어 성적이 모두 4등급이었습니다. 3수를 시작하면서 국어에 대한 고민을 하고있을 때, 제가 가장 국어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문을 이해하고 풀었을 때 성적이 잘 나왔고, 밑줄긋고 암기에 급급했을 때 성적이 안 나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유튜브에서 국정원을 보았을 때 아 이거다 싶었습니다. 제가 어렵듯이 가지고 있던 이해와 감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정답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정원 문학 비문학을 구매해서 읽었고, 상승곡선을 그린 끝에 수능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프롤로그

문학 공부, '이렇게' 안 할 거면 유튜브나 보라.

‘문학 만점’을 받기 위해서 이 책을 펼쳤다면 잘 찾아왔다. 인강을 들어봐도, 기출문제를 풀어봐도, 도대체 어떻게 문학을 공부해야 할지 감을 못 잡겠다면 아주 잘 찾아왔다. 이 책을 보기 전에 스스로 꽤나 노력했겠지만, 아마 ‘문학 만점’을 받은 시험은 정말 손에 꼽을 것이다. ‘다 됐다’ 싶었는데 시험을 치면 틀리는 개수는 그대로고, 헛갈리는 선택지는 계속 헛갈렸을 것이다. 이 책으로 너를 180도 바꿔 주겠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너를 정말 ‘180도’ 달라진 사람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 아마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고 나면 더 이상 수능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시간은 없을 거라 장담한다.

우선 ‘사실 국어 성적은 바뀌기 힘들어’,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루빨리 버리길 바란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 문학 만점을 받고, 국어 1등급을 받았던 나도 고3 때는 ‘문학은 다 맞기 쉽지 않다’, ‘헛갈리는 건 빨리 버리자’라고 생각했었으니까 말이다. 지금은 수천 명의 학생들을 문학 만점으로 만들고, ‘국어 1등급을 정말 원한다면’이라는 책까지 썼지만, 나는 사실 고등학교 3년 내내 문학 만점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 하루 10~12시간씩, 3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국어는 3등급이었고 문학에서 항상 2, 3개씩 틀렸었다. 고3 때 인강을 볼 때면 설명을 들을 땐 이해되는 거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시험장에선 끝까지 헛갈리는 선택지 2개가 항상 있었다. 인강 선생님이 시를 읽으면서 ‘여긴 화자의 부정적인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야’라고 설명하는데, 나중에 혼자 다시 보면, 왜 그게 부정적인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인지 이해가 안 됐다.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넘기자는 거였다. 머리 아프게 혼자 고민하는 게 싫었고, 나보다는 당연히 인강 선생님이 국어를 더 잘할 테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그냥 부정적인가 보다’하고 넘어갔다. 돌이켜보면, 바로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재수를 한 것이다. 인강에서 선생님이 “이 시는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시인이 쓴 거고, 시인의 부정적인 마음이 드러난다.”라고 말하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했다. 도대체 ‘어떤 구절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드러나는 건지, ‘부정적 마음’이란 뭔지, 시에서 시인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스스로 자세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나는 그저 선생님이 분석해 온 내용을 받아먹으려고만 했다.

이 공부법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 그건 바로, ‘처음 보는’ 시나 소설이 나왔을 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였다. 내가 이미 봤던 작품이 나오면 인강에서 들었던 걸 바탕으로 ‘이런 내용이었지’ 하면서 얼추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겠는데,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면 대충 부정, 긍정만 짐작할 줄 알지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당연히 작품을 ‘스스로 해석해 내는 능력’을 키우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석해 놓은 걸 받아먹기만 하니, 새로운 지문에서는 매번 틀렸다. 어쩌면 이때 나는 이미 어렵풋하게 알았는지도 모른다. 근본적인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게 문학 만점을 받는 길이라는 걸. 하지만, 공부하다 보니 수능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었고, 내가 여태껏 해왔던 공부 방법을 바꾸기에는 너무 겁이 났다. 그렇게 수능 전날까지 계속 선택지를 분석하고, 문학 개념어를 공부하고, 강사들이 정리해 놓은 EBS 분석집을 달달 외우고, 모의고사를 풀었다. 이걸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계속 허전했다. 마치 구멍 난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거 같았다. ‘수능 땀 다르겠지’하고 스스로를 계속 위로했지만, 결국 수능에서도 문학 3문제를 틀리고 3등급을 받았다.

나는 재수를 결심했다. 그 후 내가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은 수능장에서 틀렸던 문제, 그리고 내가 이제껏 틀렸던 그 문제들을 다시 보는 거였다. 다시금 그 문제들을 보니, 공통점이 있었다. 고3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가장 놀라웠던 것은, 내가 고질적으로 틀려왔던 문제들에서 ‘선택지 분석’, ‘EBS 암기’, ‘문학 개념어 암기’가 전혀 소용없었다는 거였다.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내가 고3 때 생각했던 것 이랑 아예 다른 것을 묻고 있었다. ‘여기서 화자가 왜 슬퍼했던 거 같아?’, ‘이때 영호의 감정은 어땠을까?’, ‘철수는 왜 이렇게 행동했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이 질문들은 결국 내가 스스로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답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의 의미는 뒤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이다.) 이 문제들은 다른 쉬운 문제들에 비해서 단순히, ‘부정적인 거 같다’, ‘긍정적인 거 같다’라는 생각만으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보다 매우 구체적으로 화자와 인물의 ‘감정’을 잡아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고3 때는 왜 이게 안 보였을까. 나는 이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선택지보다 ‘지문’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문에 집중하면서 화자와 인물의 ‘감정’에 신경 쓰니까, 10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되던 정답률 40%짜리 문제들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다. ‘결국 이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구나’, ‘이걸 이해했어야 맞힐 수 있었던 거구나’하고 깨달음이 왔다.

그렇게 4월부터 2개월간 공부하고,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서 문학 1문제를 틀렸다. 비록 한 문제를 틀린 했지만, 나머지 정답률 43%, 49%짜리 문제들을 다 맞혔다. 이후 9월 모의고사에서는 문학을 전부 맞혔고, 수능에서도 문학 만점을 받아냈다. 수능 전에 10개 정도 풀었던 사실 모의고사에서도 문학은 절대 2개 이상 틀리지 않았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선택지보다 지문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 근본적인 '감상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이미 평가원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서'에 모두 담겨있었다. 그곳에서 출제자들은 학생들이 선택지 분석을 해야 한다는니, EBS 변형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니 말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문학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오직 '감상'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만 말하고 있었다. 물론 말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써놓았기 때문에, 지금 고3 학생들이 본다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 것이다. 아마 나도 고3 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수십 개의 모의고사를 풀고 보고 수능을 망쳐 본 뒤에 다시 읽어보니까, 출제자는 이미 그 '안내서'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전부 말해 주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 네가 수능 만점을 위해 달리고 있다면, 반드시 이 '학습 방법 안내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공부해야 한다. 만약 네가 아직도 선택지 분석에만 매달리고, EBS 적중에 의존하며, 강사들의 인강을 뉘 놓고 바라보고 있다면 문학 성적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 장담컨대 '하루 6시간' 씩 '문학만' 공부해도, 정답률 40~50%짜리 문제 1, 2개는 절대 맞히지 못할 것이다. 진심으로, 차라리 그 시간에 유튜브를 보는 게 더 낫다. 어차피 유튜브를 보나 그렇게 공부를 하나 성적은 안 오르기에, 차라리 재밌기라도 한 유튜브를 보는 게 이득이다.

이 책은 출제자들이 제시한 '학습 방법 안내서'를 기반으로 쓰였다. 내 마음대로, '이럴 거 같은데' 하고 쓴 부분은 없다. 출제자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문학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적어 놓은 것을 기반으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 방향을 제시해 놓았다.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책이, 학생들이 '출제자가 바라는 대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유일한 책이 될 거라고. 나는 강사가 아니다. EBS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내가 만든 EBS 분석집을 팔아야 할 이유도 없고, 학생들이 내 강의를 계속 듣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수능 문학 공부에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모든 것'을 쓸 수 있었다.

이 책을 쓰기 전, 시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문학 공부법 책을 20권 정도 봤다. 적어도 내가 본 책들 중, 이 책과 비슷한 책은 없었다.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책은 없으리라고 장담한다. 시와 소설의 구절구절마다 해설을 달았고, 평가원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내면세계 공감'과 '이미지화'라는 **감상의 틀**을 제시했다. 그리고 단 한 문제도 빠짐없이, 내가 제시한 '감상의 틀'에 맞춰 해석하면 풀린다는 걸 증명해 놓았다. 다른 책이나 강의처럼 외워야 할 것이 많지도 않다. 모든 문제를 '내면세계 공감', '이미지화' 이 2개로 다 풀 것이다. 만약 이 책이 네 '문학 만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게 메일로 욕을 써서 보내도 좋다. 그만큼 자신 있는 책이다. 꽤나 많은 분량이지만, 이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이렇게만 하면 문학 만점이겠다'는 느낌이 들 거라 확신한다. 이 책을 선택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자 그럼 이제
문학 만점 만들러 가보자.'**

CHAPTER

I

공부법

1. 수능에 왜 ‘문학’을 내는 거지?

수능에서 문학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문학 문제를 내는 출제진들이 ‘도대체 왜 문학 문제를 내는 건지’, 문학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건지’ 알아야 한다. 그걸 알아야 ‘출제자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부터’ 제대로 읽어야 하는 것과 같다.)

나는 출제자가 문학으로 어떤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서’라는 파일이 있었다. 출제자는 이 파일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전부 대놓고 말해 주고 있었다.

◆ 아래 사진은 ‘평가원 학습 방법 안내서’ 안에 있는 국어 공부법 내용 중 ‘문학’ 공부법에 관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문학

문학 능력은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심미적·창의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가치있는 삶과 세계의 창조에 기초가 되는 상상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수용과 생산 능력(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학을 출제한다. 또한 작품에 드러나는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화를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고전 시가·고전 소설·고전 산문·민속극·현대 시·현대 소설·현대극·시나리오·수필 등 다양한 문학 갈래의 작품을 활용하여 출제하되, 작품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기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기
	문학과 인접 분야(다른 형식의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문화적 현상 등)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하기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기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제적인 관점에서 창작하기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하기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 하기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 하기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하기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해서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기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탐구하기
문학에 대한 태도	문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 지니기
	문학 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지니기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고전 소설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어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12문학03-02]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한다.',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문항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김원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보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작품 속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 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은 <보기>를 통해 '인물 간의 대결 관계'가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지문의 내용을 통해 원수는 '일세에 무쌍'한 창검술을 지니고 있고 초월적 능력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귀의 '비수'를 시험하는 것은 공주의 지혜로운 조언 때문이다. 원수의 칼에 기둥이 반박에 베어지지 않자 크게 놀란 공주가 '만일 그 칼을 찢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했다고 하는 데에서 칼을 시험해 보는 것은 원이 원래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서술한 ㉔의 내용은 작품을 감상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전 소설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대화나 행동을 파악하고, 작품 속 구체적인 맥락에서 그러한 대화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가 요소

- 이 문항은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고전 소설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어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12문학03-02]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한다.',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2) 문학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재구성하는 능력과 아울러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문학적 인식과 표현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문학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학

작품을 비판적·창의적으로 **감상** 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자료들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다. 내가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 바로 ‘**감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감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깊이 있고 종합적인 감상을 해야 한다’ 등 말만 바뀌가면서 결국 ‘감상’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출제자들은 ‘문학을 왜 출제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감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도대체 감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감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면 입이 잘 안 떨어진다. 네이버에 ‘감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예술 작품을 깊이 음미하고 그 미적인 내용을 이해하며 즐기는 일’이라고 나온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 자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천천히 하나씩 뜯어보자.

우선 위 문장에서 말하는 ‘예술 작품’은 영화, 음악, 그림 같은 것들을 말한다. 물론 시와 소설도 예술 작품에 해당한다. 위 감상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이런 작품들을 ‘깊이 음미하면서’ 읽는 것이 ‘감상’하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깊이 음미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또 ‘그 미적인 내용을 이해하며 즐기는 일’이라고 하는데 미적인 내용을 ‘이해하며 즐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참으로 추상적이다. 의미가 확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문학을 감상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사전까지 찾아봐도, 도대체 그 ‘감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감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평가원에서는 우리에게 ‘감상 능력’을 측정하겠다고 내놓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이 ‘감상’의 의미만 알면 문학 공부는 끝나는 것이다. 감상의 구체적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내가 스스로 ‘감상’할 수 있다는 건, 내가 ‘평가원에서 학생들에게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감상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수능 출제 위원들이 쓴 책, 평가원 보도 자료, 기출 문제 등을 보면서 ‘감상’한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를 잡아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상을 한다는 것, 예술 작품을 ‘깊이 음미’한다는 것, 그 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즐긴다’는 것은, 그 작품에 ‘**공감**’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음악을 ‘감상’한다는 건 작곡가가 만든 음에 ‘공감’하고, 작사가가 쓴 가사에 ‘공감’한다는 뜻이다. 영화를 ‘감상’한다는 건 영화 속 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공감’한다는 뜻이다. 뮤지컬 감상, 미술 감상, 드라마 감상 등 전부 다, ‘**감상**’이라는 말 아래에 ‘**공감**’이라는 원리가 숨어 있었다.

영화 볼 때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울고, 웃는다. 영화 속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연쇄 살인범을 보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어벤져스가 세상을 구하는 장면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기도 한다. 왜 그러는 걸까? 바로, **영화 속 인물의 감정, 인물이 처한 상황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연쇄 살인범에게 죽임을 당하는 피해자의 마음,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에 ‘공감’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다. 또 어벤저스를 볼 때, 히어로들의 마음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구하고 기뻐하는 걸 보며 우리도 덩달아 기쁜 감정이 드는 것이다. 영화를 글로 나타내면 소설이 되고, 그걸 더 짧게,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시가 된다. 시에 음을 붙이면 노래가 되고, 시에 색을 입히면 그림이 된다. 여기서 소설, 시, 음악, 그림 등은 모두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 소설을 감상하는 방법,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 미술을 감상하는 방법은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통해 나는 수능 문학을 ‘감상’한다는 것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문학을 감상한다는 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처럼, 인물이나 화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함께 ‘상상’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기출 문제를 하나씩 분석해 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신기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문학 문제가 ‘감상’을 제대로 했는지만 물어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세히 말해서, “화자가 지금 어떤 마음인 거 같아?(공감했어?)”, “인물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 같아?(상상했어?)” 이 2가지 질문을 말만 바꿔가며 물어보고 있었다. 수능 문제는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전부 인물, 화자의 마음에 공감했는지, 또 그들이 보고 있는 걸 같이 떠올릴 수 있는지 이 2가지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다. 각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전부 이 2가지에 대해서 묻는다. 나는 이 2가지를 앞으로 간단하게 ‘내면세계 공감’과 ‘이미지화’라고 부를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면세계 공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자나 인물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지화’라는 것도 단어 그대로,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이미지로 떠올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두 가지를 하면서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감상’하며 읽는다고 할 수 있다. 또 ‘내면세계 공감 능력’과 ‘이미지화 능력’을 키워나갈 때 본질적인 ‘감상 능력’이 향상되어 문학 성적이 오른다. 그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2. ‘내면세계 공감’의 구체적 의미

우선 ‘내면세계 공감’에서 ‘내면세계’란, 말 그대로 ‘화자, 인물의 내면에 펼쳐져 있는 세계’를 말한다. 우리 내면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존재한다. 슬픔, 벅참, 기쁨, 기대, 짜증, 걱정, 화남, 억울함, 답답함 등등. 심지어는 미워하면서 사랑하기도 하고, 걱정하면서 기대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에는 ‘무한’에 가까운 감정들이 존재한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그런 여러 감정들이 마치 ‘세계’와 같이 광활하고 크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내면‘세계’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내면세계’라는 단어는 내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이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4차 국어과 교육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국어과는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시키고 문학 감상력과 상상력을 기르며, 인간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게 하는 교과다.’라고 적혀 있다.

◆ 또 2010학년도 수능에서도 ‘내면세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제를 출제했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①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 ②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 ④ 6연의 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 ⑤ 7연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이런 내면세계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면세계 공감’이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여러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 학교 폭력을 당하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기에 가해자들에게 화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공감’한다고 말한다. 즉, ‘공감’이라는 건 타인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보고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 시나 소설도 글로 쓰여 있다는 것뿐이지, 영화와 똑같다. 우리는 시나 소설을 읽을 때도 영화를 볼 때와 같이 화자와 인물의 내면세계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 실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내면세계 공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자.

위낙 짧은 밑천으로 가게를 꾸려 가자니 아버지는 물건 구색을 맞추느라 하루에도 많을 때는 세 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미 포대를 거머쥐고 종종걸음을 쳐야 했고,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의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다.** 하마 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거나 조립용 신형 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 반 친구를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나 주산 학원을 가는 여자 아이들을 만나는 날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허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 2020학년도 수능 「자전거 도둑」

내가 굵게 표시해 놓은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인물의 내면세계에 공감하며 읽는 것이다. 왜 ‘나’는 아버지 뒤로 팔을 늘어뜨리고 따라다니는 것이 죽도록 싫었을까. 왜 반 친구나 여자 아이들을 만나는 날에는 죽고 싶었을까. 바로 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다.

우선 윗글의 ‘**위낙 짧은 밑천으로 가게를 꾸려 가자니**’를 보면 ‘나’의 형편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학교가 끝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놀지 못하고, 아버지 일을 돕기 위해 시장통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일을 돕다가 야구 글러브를 끼고 놀거나 신형 장난감 상자를 들고 다니는, 소위 ‘잘사는 집’ 친구들을 보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어릴 때는 누구에게나 집이 가난한 게 하나의 부끄러움이지 않은가. 또 같은 남자애들 말고 여자애들을 마주치는 날이면, 남자애들끼리 마주쳤을 때보다 더 쪽팔리고 부끄럽다. 원래 반에서 친구들끼리 서로 놀릴 때도 남자애들끼리 있을 때 놀리면 상관없는데, 여자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놀리면 더 짜증 나는 것과 같다. **이성 앞에서는 더 잘 보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직, 간접적으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실제로 자신이 겪었을 수도 있고,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봤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언젠가 한 번 겪었던 경험들로 이런 구절들에 공감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게 죽도록 싫었다.’, ‘정말 그 자리에서 허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로 표현되는 작품 속 인물의 내면세계에 공감하고 넘어가는 것이 문학을 감상한다는 말의 의미다.

수능 문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내신 공부할 때처럼, 선생님이 불러주신 대로 인물의 감정을 받아적고 외우는 게 아니라, **작품을 읽으면서 마치 내가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된 듯, 진심으로 인물의 마음에 공감해야 한다.** 이때 인물의 내면세계에 공감을 잘하려면 문학을 감상하는 ‘틀’을 배워야 한다.(필터링, 감각적 표현, 반복되는 내면세계 등) 그 틀은 앞으로 이 책에서 기출 문제를 함께 풀

어보면서 구체적으로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으로 ‘감상의 틀’을 배운 뒤에는 너 혼자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많은 경험을 해봐야 한다. 이런 인물도 만나보고, 저런 인물도 만나보면서 계속 그들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려고 해야 한다. 다양한 내면세계를 경험하면 할수록, 공감의 빠르고 정확해지기 때문이다. 또 내면세계는 자주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품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더 쉽고 빠르게 내면세계에 공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어, 이거 「비오는 길」에서 봤던 내면세계인데?’, ‘이거 「산상의 노래」에 나왔던 내면세계네’ 하는 식으로 비슷한 내면세계가 나왔을 때 독해가 수월해진다. 기출 문제 속에 나와 있는 여러 내면세계에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스스로 여러 내면세계에 공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근본적인 ‘감상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수능장에서 분명 내가 공감했던 것과 비슷한 내면세계를 마주하게 된다. 문학 만점을 받는 학생들은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친다.

3. ‘이미지화’의 구체적 의미

‘이미지화’라는 것은 시든 소설이든 작품을 읽으면서 화자나 인물이 보고 있는 것,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그려 내는 것을 말한다.

◆ 아래는 2006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북어」라는 시의 1연이다.

밤의 식료품 가게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이걸 보고, 눈앞에 ‘식료품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북어’가 보여야 한다. 그게 이미지화를 하며 시를 읽는다는 말의 의미다. 시에서 ‘빨간 사과’라는 시어를 보는 순간 빨간 사과가 보여야 하고, ‘땀뻘한 냄새’라는 시어를 보는 순간 그 냄새가 느껴져야 한다. 물론 시인이 본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상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는 ‘이미지화’를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지를 떠올릴 필요 없이, 그냥 이미지 자체가 내 눈앞에 제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나 소설을 읽을 때는 스스로 ‘이미지화’를 해줘야 한다. 시나 소설에서는 이미지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지화’에 능숙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울고 웃는 건 잘해도, 시나 소설을 읽으면서 울고 웃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다. ‘문학 감상을 잘한다’라는 것은 시나 소설을 읽으면서 울고 웃는다는 걸 뜻한다.

고3 때 다른 과목은 다 4등급인데 국어는 무조건 1등급이 나오는 친구가 있었다. 나와 다르게 문학에서 거의 틀리지 않았고, 문학을 왜 어렵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는 친구였다. 그 친구가 너무 신기해서 평소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하는지 지켜봤다. 그런데 이 친구는 국어 기출 문제는 하나도 안 풀고, 맨날 학교 도서관에서 소설을 왕창 빌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는 쉬는 시간이나 자습 시간에 그 소설을 읽으면서 자기 혼자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면서 소설책을 열심히도 읽는 모습을 보았다. 어떨 땐 혼자 감동 받아서 우는 거 같기도 했다. 그때 그 친구가 왜 저러는 거지 싶었다. 글자만 보고 어떻게 저렇게 재밌어할 수 있는 건지 신기했다. 나도 그 친구를 따라서 소설 몇 권을 읽어보긴 했지만, 막 그렇게 재밌진 않았다.

이후 내가 문학 공부법을 깨닫고 그 친구를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친구는 자기 머릿속으로 ‘영화 한편’을 보고 있던 거였다. 글자를 글자로만 봤던 나와 다르게, 그 친구는 소설을 펼치는 순간,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자기가 소설 속 주인공이 됐던 거였다. 지금 기출 문제를 펼치고, 딱 한 구절만이라도 마치 영화 보듯이 모든 장면을 상상하며 읽어봐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장담하건대, 이렇게 하면 소설 읽는 게 훨씬 재밌어진다.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장을 읽을 때보다 머리를 써가면서 상황을 이미지로 그려가며 읽으면 화자나 인물이 느끼는 감정에 몰입하기가 더 쉬워진다. 작품 속 인물이 보고 있는 걸 같이 보고, 말고 있는 뉘새를 같이 말고, 만지고 있는 것을 같이 만지면 당연히 인물의 감정에 몰입하기가 쉬워질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즉 ‘이미지화’를 하며 읽으면 앞서 말했던 ‘내면세계 공감’도 수월해지는 것이다.

위 「자전거 도둑」을 읽을 때도, ‘팔을 축 늘어뜨리고 걷는 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야구 글러브, 장난감 상자를 갖고 있는 남자애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학원을 가는 여학생들의 모습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읽는다. 이렇게 읽게 되면 그런 상황에 처한 ‘나’의 내면세계를 짐작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냥 활자만 읽을 때보다 몰입도 잘되고 ‘나’의 감정이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 영화를 화면 없이, 소리만 들으며 보는 것하고 이미지와 함께 보는 것 중 뭐가 더 와닿겠는가.

「자전거 도둑」은 상대적으로 쉬운 소설이라 굳이 이미지화를 하려고 신경 쓰지 않아도 읽으면서 저절로 이미지가 그려졌을 것이다. 하지만 소설의 난도가 어려워지거나 시험장과 같이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이미지화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장만 읽고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계속 ‘의식적으로’ 이미지화를 하면서 읽는 연습을 해줘야 한다.

◆ 아래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미지화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잡아보자. 최대한 화자가 보고 있는 것, 화자가 처한 상황을 상상하면서 읽어 보기 바란다. 2분 정도 잡고 천천히 읽어보자.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라는 구절을 보고 동시에 풀벌레 소리가 들렸어야 한다. ‘까맣고 좁은 통로’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 ‘너무 단단한 벽’, ‘전등에 부딪혔다가’를 읽으면서 ‘촉각’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환해진다’를 보면서 동시에 ‘이미지’가 떠올라야 했다.

이렇게 ‘이미지화’를 하며 읽으면 ‘문학이 재밌어진다는 것’, ‘내면세계 공감에 잘된다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바로, 문제로 갔을 때도 작품 내용이 기억에 많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지화를 하고 읽으면 문제로 돌아갔을 때도 작품 내용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 속 상황을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바꿔버리면 그 정보가 ‘시각 정보’로도 저장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눈으로 문장만 읽고 넘어갔을 때보다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다. * 참고 출처 : ‘정리하는 뇌’(대니얼 J.래비틴, 와이즈베리 출판사)

작품을 읽으면서 같이 보고, 듣고, 만지고 문제로 가면, 문제에서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이 있었냐고 물어볼 때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시선의 이동이 있었는지, 시점의 변화가 있었는지, 내면세계의 변화가 있었는지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너는 이제껏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지문으로 돌아가서 일일이 찾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출제자가 얼른 지문으로 돌아가서 ‘서치’하라고 내는 게 아니다. ‘너 이미지 그리면서 읽었어?’를 묻고 싶은 것이다. 누가 ‘눈알 빨리 굴리는지’ 보려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저런 문제들을 틀렸을 때, ‘다음엔 더 빨리 돌아가서 정확하게 확인해야지’가 아니라, ‘다음엔 더 섬세하게 떠올려야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게 옳은 방향이고, 문제를 더 빨리,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수능 문학 출제자는 학생들이 문학을 ‘감상’하며 읽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 감상 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문제를 틀리도록 만든다. 여기서 ‘감상’을 한다는 것은 2가지를 하며 읽는다는 것이다. 하나는 화자와 인물의 ‘내면세계에 공감’하며 읽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지화’를 하며 읽는다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 내면세계에 공감해야 하는지,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야 하는지는 이후 기출 문제들을 함께 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이다. 지금은 이 2개가 문학 만점을 위한 핵심이라는 걸 납득하는 걸로 충분하다.

문학에서 정답률 30%, 40%를 찍는 고난도 문제 1, 2개를 맞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면세계 공감’과 ‘이미지화’ 연습을 해야 한다. 한 문제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들어가는 수능 문제를 만들면서, EBS 외웠다고 맞힐 수 있게 만들고, ‘서치’해서 풀 수 있게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낸다면 수능은 ‘암기’해야 하는 내신과 다를 바 없게 되고, 눈알 굴리기를 잘하는 학생이 만점을 받기 때문이다. 쉬운 방법을 찾지 말고, 최선을 다해 ‘감상’하자. 화자와 인물의 마음에 깊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소설을 펼치면 글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4. 출제자는 왜 ‘감상 능력’을 기르라고 말하는 걸까

그런데 출제자는 왜 학생들의 ‘감상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걸까? 왜 내면세계 공감을 할 수 있는지, 이미지화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걸까? 도대체 왜, 학생들이 감상 능력을 기르길 원하는 걸까? 바로 **감상 능력을 기르는 과정에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이다.** (출처 : 평가원 홈페이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우리는 여러 시와 소설을 읽어보면서 10대 어린아이의 삶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60대 할아버지의 생애를 관찰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사람의 마음도 짐작해 볼 수 있고, 현실이 너무 싫어서 새로운 이상 세계를 꿈꾸는 사람의 마음도 엿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시대를 초월해서 일제강점기에 살던 사람들의 생각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문학 작품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사실 문학 이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토록 섬세하고 오랫동안 들여다볼 기회는 잘 없다. 정말 친한 친구나 가족이랑 대화할 때 정도를 제외하

면 내 마음을 전부 털어놓는 일도,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도 잘 없으니 말이다.

문학 작품들은 작가가 자신의 내면을 오랜 기간 들여다보고, 그걸 섬세하게 풀어놓은 일기장과 같다. 이를 통해 작가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일기장을 들여다보면서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이런 감정이었던 거구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시나 소설 속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엿보면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공감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문학 감상을 통해 공감 능력이 길러지면서, 그때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던 건지, 왜 아빠가 끝까지 힘든 내색을 안 했던 건지, 독립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지, 문학을 읽기 전에는 애매하게만 짐작하던 답할 수 없었던 질문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다. ‘재는 왜 저래’하고 넘겼던 순간들이 ‘그래서 그랬구나’로 바뀌게 된다. 뿌옇게 보이던 세상이 선명해지는 것이다.

5. 모든 문제는 사실 ‘이 2가지’만 물어보고 있다.

내가 말하는 문학 공부법은 ‘출제자’가 원하는 공부법에 가장 부합하는 공부법이지만 시중에 있는 방법들과 많이 다르다. 대부분의 해설서가 문제 해설에 치중하고 있지만, 나는 문제 해설보다는 ‘작품 해설’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썼다. 또 그 어떤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면세계’라는 생소한 개념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설해 놓았다. 그렇기에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의심이 들 수도 있다. ‘진짜 이 방법이 맞나?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르나?’ 하고 말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 책의 뒤쪽에 나오는 ‘기출적용편’을 공부하다 보면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수능에서는 정말 ‘내면세계에 공감했는지, 이미지화를 했는지’ 이 2가지만 물어본다는 것을 말이다. 네가 문학 성적이 낮다면 지금 어떤 엄청난 비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감상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인물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또 인물이 보고 있는 세계를 머릿속으로 그려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증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다. 결국 ‘감상’이 문제다.

그냥 ‘줄거리’만 파악하면 절대 성적은 안 오른다. 오르는 것 같다가도 결국 정답률 50% 미만의 고난도 문제에서는 계속 틀리게 될 수밖에 없다. 어떤 난이도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활자 너머에 있는 세계를 봐야 한다. 그저 종이 위에 적혀 있는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에 묻어 있는 세세한 감정들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자재로 될 때, 문학을 다 맞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6. 문학 공부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TOP 9

내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와 블로그에 약 1,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남겨준 질문 중 공통되는 문학 질문들을 뽑았다.

질문
01

김민혁(가명) | 고3

Q. 문학은 몇 분 만에 푸는 것이 가장 좋나요? 20분 만에 풀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30분 만에 풀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서요.

A.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문학을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문학을 '시간 안에 풀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한다.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문학을 풀려면 앞서 계속 말했듯이, '감상'을 해야 한다. 즉, '내면세계 공감'도 해야 하고, '이미지화'도 해야 한다. 차분히, 지문 속에 있는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마음속에 '몇 분 컷'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쉽게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그냥 겉핥기 식으로 글자만 보게 된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공감'과 '이미지화'가 자연스레 되는 1등급 학생들이 아닌 다른 학생들은, 그렇게 연습했던 '내면세계 공감'과 '이미지화'가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것이다. 날림으로 읽다가, 문제에 가서 어떻게든 맞히려려고 하겠지만, 문제로 가니 헛갈리는 선택지 2개가 나온다. 다시 지문으로 왔다 갔다 하기를 반복한다. 오히려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리고, 20분 컷, 25분 컷을 못 했다는 생각에 멘탈이 나간다. 그렇게 시험을 망치는 것이다.

문학 20분 컷, 22분 컷 같은 건 '환상'이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나를 옥죄어서, 한 번 흔들리는 순간 무너지게 만든다. 문학을 풀 때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푸는 것이다. 내면 세계 공감과 이미지화를 머릿속에 넣고, 작품을 읽을 때는 시간을 잊고, 그 작품에 온전히 집중한다. 시간을 잊을 때 가장 빨리 푼다.

물론 문학에만 40~50분을 쓰는 건 당연히 안된다. 개인적으로 마지노선은 30분~35분이라고 생각한다. 30분은 이 책에서 시키는 대로 감상 능력을 올리다 보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시간이니, 시간 내에 풀려면 '시간 내에 풀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시간 걱정은 넣어두고 감상 능력을 올리는 것에만 집중하자.

질문
02

이유나 | 고3

Q. 저는 모의고사 풀 때 시 파트를 먼저 풀고, 소설을 나중에 푸는데, 혹시 추천하시는 문제 풀이 순서가 있을까요?

A. 누구에게나 완벽히 맞는 문제 풀이 순서 같은 건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평소 자신이 자신 있는 파트', '쉬운 파트'부터 푸는 게 좋다. 국어 시험은 수능장에서 아침 8시 40분에 '처음' 치는 시험이다. 평소에 어려워하던 파트부터 풀면 안 풀렸을 때 당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뒤 파트 풀 때 부담이 돼서 분명 실수가 나온다.

이후에 각 파트별 특징을 설명해 주겠지만, 수능장에서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이 현대 시, 현대 소설에 비해 더 쉬울 가능성이 높다. 고전은 나오는 내면세계가 맨날 똑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을 먼저 푸는 걸 추천한다. 나는 수능 때 고전 시가, 고전 소설, 현대 시, 현대 소설 순으로 풀었다.

지금은 '무슨 소리야 난 고전이 켈 어렵던데'라고 생각하더라도, 이후 이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너도 생각이 바뀔 것이다. 이 책에서 시키는 대로 문학 공부를 한다는 전제하에, 고전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게 정상이다. 매번 나오는 게 똑같고, 고전에서만 나오는 특징 같은 것들 몇 가지만 주의하면 절대 안 틀린다. 이후 다 설명해 줄 것이다.

질문
03

김현석 | 재수생

Q. 친구들 보면 '문학 개념어'를 따로 공부하던데, 기출 문제 풀기 전에 '문학 개념어' 공부를 따로 해야 할까요?

A. 네가 지금 '문학 개념어'를 따로 공부할까 고민하는 이유는, '문학 개념어'를 뭔가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출 분석을 하기 전에 한 번 제대로 정리하고 싶은 것 아닌가?

너는 반어, 역설, 대구, 대비, 은유, 어조 등의 단어들을 뭔가 특별한 '문학 개념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평가원은 이 단어들을 '특별한 뜻'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뜻과 똑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출제자도 '비유'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네이버에 '비유'를 검색하면 나오는 뜻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한다. 네가 뭔가 정리하고 외울 만큼 특별한 것들이 아니다.

만약 네가 '문학 개념어'라 생각하는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건 문학 개념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어휘력'이 부족해서다. 그냥 기출을 바로 풀자. 바로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고 뜻을 외우자.

질문
04

김지현 | 고3

Q. 국정원 비문학 편을 읽은 학생입니다. 비문학은 밑줄 안 쓰고 생각하면서 읽고 있는데, 혹시 문학 작품 읽을 때도 아무 표시 안 하고 읽는 게 좋을까요?

A. 내가 비문학을 읽을 때 지문에 표시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표시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이 문장을 ‘이해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진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었다. 문학도 마찬가지다. 내가 인물, 시어에 동그라미 치고, 중요해 보이는 구절에 밑줄 치면서 읽으면 그 인물과 시어, 구절을 이해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정말 그 인물과 시어, 구절에 공감하고, 이미지를 생생하게 떠올려서 밑줄 친 게 아닌데도, 공감하고 이미지화를 제대로 했다고 ‘착각’한다.

‘사 씨’, ‘장 씨’, ‘한림’, ‘원수’, ‘황후’ 등에 동그라미 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지 빨리 잡아내라. 평가원은 네게 암기력을 묻지 않는다. 명심하자. 절대 평가원은 인물을 막 7, 8명씩 내서 너를 헛갈리게 하지 않는다. ‘장 씨’가 한 말을 ‘황후’가 한 말로 바꿔서 틀리게 만드는 일은 없다.

핵심은 ‘내면세계 공감’과 ‘이미지화’다. 만약 네가 밑줄치고 동그라미 치면서도 공감하고 이미지화 해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아마 그러기 힘들 것이다. 밑줄이란 것 자체가, 뭔가 ‘정리’되고 있고, ‘이해’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밑줄 치지 말고, 그냥 감상에만 집중하길 권한다.

마지막으로, 너는 이런 반응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밑줄 쳐놓으면, 인물이나 시 구절, 시어의 의미가 기억 안 날 때 빨리 돌아올 수 있잖아요..”. 네가 인물, 시 구절이 기억나지 않고, 시어의 의미가 기억나지 않는 이유는, 밑줄을 안 치고 넘어가서가 아니라, ‘감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공감’을 못하고, ‘이미지화’를 못 했으니까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빨리 깨달아야 한다.

질문
05

김현성 | 고3

Q. 혹시 기출문제는 몇 개년을 보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먼저 몇 개년을 보는 게 좋을지 말해주자면, 정답은 없다. 누군 5개년만 보고도 만점을 받고, 누구는 전 개년을 다 보고 만점을 받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최신에 나온 ‘수능’ 국어 시험을 기준으로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은, 2002학년도까진 봐야 한다고 본다. 옛날 시험들도 출제 원칙은 똑같았고 배울 게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2002학년도까지 보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국정원 기밀문서’라는 기출 문제집을 만든 것이다. 이 책에는 2002학년도

수능부터 네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반드시 봐야 하는 기출 문제들만 수록해 놓았다. ‘국정원 문학편’에서 하는 말이 도움 된다고 생각하면 국정원 기밀문서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다. 만약 ‘국정원 기밀문서’로 공부할 친구들은 시존1 ~ 4만 3회독 이상해도 충분하다. 문학은 최대한 많은 작품을 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 최대한 많은 기출 문제를 풀면서 여러 화자, 인물의 내면세계를 경험해 보도록 하자. 기출 문제를 다 풀었다면 사관학교도 풀어보고, 교육청도 풀어보고, EBS도 풀어보자. 내면세계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시험장에서 공감이 빨리 된다.

기출을 볼 때 주의할 점은 2개다. 하나는 내가 지금 ‘내면세계 공감’, ‘이미지화’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아서 해결된다. 나머지 하나는 ‘선택지 하나하나를 전부 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 선택지를 ‘제대로’ 해설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엄청 힘들다. 평소에는 그냥 ‘뭐 이걸 당연히 틀렸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연히’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면 쉽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그 과정에서 ‘어라? 이걸 당연한 게 아니었네?’ 하는 생각이 든다. 그 과정에서 문학 공부의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바뀌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선택지 하나하나 근거를 찾아가며 1회독해야 3회독, 5회독한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선택지 하나를 ‘한 문제’라고 생각해라. 내가 과외 학생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다. 한 문제당 선택지가 5개니까, 1문제가 아니라 5문제인 것이다. 네가 지금 과외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해설하려 노력해 보라.

질문
06

김성진 | 재수생

Q. 저는 진짜 뻥속까지 이과인 남학생입니다. 제 친구는 공감도 잘하고 이미지화도 잘하는 거 같은데, 저는 그게 잘 안됩니다. 시를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래도 노력하면 늘까요?

A. 사실 사람마다 타고나는 공감 능력의 차이는 존재한다. 보통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테스토스테론’이 여자에 비해 10배나 더 많다. 갑자기 무슨 테스토스테론이냐고? 기다려봐라. 이게 공감 능력이란 관련이 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면, 승부욕이 상승하고, 공감 능력이 낮아진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게임과 스포츠를 훨씬 많이 한다. 또 남자들은 카페에 앉아서 3, 4시간 수다 떠는 일이 거의 없다. 대화를 한다고 해도 일상 얘기보다는 게임, 스포츠, 돈에 관한 얘기가 대부분이다. 과외를 해봐도, 남학생들은 소설을 읽고 시큰둥한 반면, 여학생 중에는 눈물이 고이는 학생들이 꽤나 있었다. 하지만, 그런 남학생들도 계속해서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이미지화를 연습하면 분명히 감상 능력이 높아진다. 우리 뇌는 많이 쓸수록 강화되기 때문이다.

과거 과학자들은 ‘지능’ 같은 타고난 능력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는 쉽게 말해서, ‘뇌’를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이론이다. 신경 가소성 연구자들은 런던 택시 기사들의 뇌를 조사해 봤다. 런던 택시 기사들은 다른 나라의 택시 기사들과 달리 내비게이션을 쓰지 못한다. 1700년대 귀족이 타던 마차의 마부법에 따라 마부가 지도를 보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그 전통이 이어진 것이다. 그래서 런던 택시 기사가 되려면 런던의 길을 전부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한다. 연구자들이 그들의 뇌를 조사해 봤더니, 해마의 크기가 일반인들에 비해 1.5배 정도 더 컸다. 해마는 뇌에서 ‘공간 지각’과 ‘기억’을 맡는 부분이다. 내비게이션을 못 쓰는 런던 택시 기사들은 매일 같이 런던 거리를 누비며 ‘머릿속으로’ 길을 외웠고, 그 과정에서 ‘공간’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발달한 것이다.

또 노먼 도이지 박사의 <기적을 부르는 뇌>를 보면, 런던 택시 기사 사례 외에도, 뇌가 발달한 수많은 사례들이 나온다. 이처럼 뇌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계속해서 내면세계 공감과 이미지화를 시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크게 힘들이지 않고, 빠르게 공감과 이미지화가 가능해지는 순간이 온다.

스스로를 계속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마라. 그렇게 머릿속으로 단정 지어 버리면 실제로 공감도 잘 안되고, 하기도 싫어진다. (출처, <생각에 관한 생각>) 우리 ‘생각’은 뇌와 신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상상 훈련만으로 몸 근육이 단단해지기도 한다. 너도 분명 영화나 드라마 중에 재밌게 본 것이 있을 것이다.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웃을 수 있다는 건 시와 소설을 읽으면서도 울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와 소설을 배우와 카메라로 표현한 것이 영화와 드라마일 뿐이다. 시와 소설을 읽으면서 ‘이미지화’한다. 머릿속에 나만의 배우와 카메라를 떠올린다. 그들에게 ‘공감’한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누구나 느낀다. 나도 내가 9살 일 때, 훗날 고3이 되어 미적분을 하고, 삼각함수를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상상은 하지 못했다.

질문
07

박지윤 | 고3

Q. EBS를 봐야 하나요? 봐야 한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봐야 하죠?

A. 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규원가」가 똑같이 연계됐지만, 전 문항 중 오답률 1위였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EBS를 통해서 미리 알고 있던 지문이라면 정답률이 높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2021학년도 수능 「사막을 건너는 법」, 2020학년도 수능 「월선헌십육경가」, 2019학년도 수능 「천변풍경」, 「오발탄」, 2018학년도 수능 「묘비명」 전부 다 ebs 연계였다. 그런데 정답률은 모두 50%대였고, 시험이 끝나고 제대로 해설을 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수능에서 만들어지는 문제는 한 문제당 1,000만 원 ~ 2,000만 원이다. 시험 치기 전에 한 번 봤다고, 암기했다고 누구나 풀 수 있게 내진 않는다. 암기력을 측정하는 문제는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원은 한 문항당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 섬세하게 ‘평가원만’ 만들 수 있는 문제를 낸다. ‘평가원만’ 만들 수 있는 문제는 ‘감상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다. 수능은 내신이 아니다.

물론 아는 작품이 나오면 안정감이 있다. 근데 그게 정답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안정감이 들뿐,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건 아니다.** 핵심은 본질적인 ‘감상 능력’이다. 감상 능력이 없으면 10번 넘게 봤던 지문이라도 틀린다. EBS 작품 정리를 해도 되는 사람은, 기출 분석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감상 능력’을 키운 학생들이다. 등급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1등급 학생들이나 EBS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평가원 시험 기준으로 2등급 이하라면 기출 분석을 하면서 감상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실력을 높여서 1등급에 도달하게 되면, 또 기출 분석을 다 하고 나면, 그때 EBS를 하면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EBS보다 기출이 중요하다는 건 모든 1타 강사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참고로 나는 수능 직전까지 EBS를 한 번도 안 봤다. 계속 기출만 봤다. 마지막에 사설 모의고사를 풀면서 거기에 있는 EBS 작품들을 몇 개 봤을 뿐이다. 개인적으로는 수능 직전에 사설 모의고사 몇 개 푸는 걸로 EBS 대비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수능 1, 2달 전에 나오는 이감, 상상 모의고사에는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EBS 지문들이 담겨 있다. 6월, 9월에 연계됐던 작품들은 모두 제외하고, 내로라하는 수능 국어 전문가들이 ‘수능에 나올 만하다’고 선별한 작품을 변형해서 모의고사에 실는다. 이런 사설 모의고사 5, 6개 정도 풀면 EBS 연계 대비는 충분하다고 본다.

만약 네가 지금 EBS를 공부하려는 1등급이라면, EBS를 공부할 때도 무작정 작품 줄거리 외우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기출 분석하듯 ‘**감상**’해야 한다. 그래야 시험장에서라도 기억이 난다. ‘감상’을 하며 읽으면 EBS 작품 속 내면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그냥 달달 외우는 것은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공부하면 수능 칠 때쯤 다 까먹는다. ‘이해’를 한 것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수능까지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나 또한 고3 때는 EBS를 달고 살았다. 수능장에서 국어 시험지를 받고 파본 검사를 하는데, 「자전거 도둑」, 「월선헌십육경가」가 연계됐었다. 그런데, 그게 끝이다. 결국 「자전거 도둑」에서 1문제 「월선헌십육경가」에서 1문제를 틀렸다. 「자전거 도둑」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작품이었고, 「월선헌십육경가」는 EBS 분석집에서 5번 넘게 본 작품이었다. 그런데도 틀렸다. ‘내가 한 번 봤던 지문이니까, 쉽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문제로 갔는데, 문제가 안 풀렸다. 이것도 답인 거 같고, 저것도 답인 거 같았다. 시간도 엄청 걸렸고, 답도 틀렸다. 재수할 때가 돼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그때 그냥 ‘감상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아직 EBS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겠다고? 네가 지금 ‘EBS를 해야 할까’ 하

고 고민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수능 때 아는 문제가 나오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 아닌가. 정답률이 증명하고, 평가원 출제 원칙이 증명하듯, 절대 알고 있다고 해서 빨리 풀고, 정답을 맞힐 수 있게 하지 않는다. 감상 능력도 있고, EBS 작품도 충분히 본 상태라면 당연히 연계 작품이 나왔을 때 남들보다 빨리 풀고, 정답도 정확히 맞힐 수 있다. 하지만 ‘감상 능력’이 없다면, 수능에 나오는 문학 작품을 ‘전부’ 알려줘도 너는 만점 못 받는다.

다른 친구들은 다 EBS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러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불안할 것이다. 6월 모의고사에서 ‘연계 덕분에 문학 만점 받았다’라고 말하는 친구를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능날 다 밝혀질 것이다. 이 책을 믿고, 감상 능력 키우는 데만 집중해라.

질문
08

황서준 | 재수

Q. ‘국정원 문학편’은 몇 등급 대 학생들이 보면 가장 좋나요? 제가 지금 2등급인데 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A. 뻔한 말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수능 문학 공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걸 그 어떤 책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책이기에, 어느 등급 대든 보면 도움이 된다. 심지어 중학생이 봐도 도움 될 거라 확신한다. 평가원 출제 의도에 맞춰, 문학을 감상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장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등급 대를 말해주자면, ‘2등급’ 또는 ‘문학만 틀리는 1등급’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책을 쓰면서 내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문학 ‘만점’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문학 만점을 위해서는 항상 문학을 풀 때면 틀리게 되는 1, 2문제를 잡아내야 한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본 학생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그래서 이 1, 2문제를 잡아내는 방법을 엄청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1, 2문제를 맞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이 책을 완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17문제 중 나머지 15, 16문제는 다 맞히는데 고난도 1, 2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2등급, 1등급 학생들이 가장 크게 이 책의 가치를 체감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3, 4, 5등급 학생이 이 책을 본다고 해서 가치를 못 느끼거나,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다. ‘보통’ 그렇다는 것이다. 내가 과외한 학생 중, 6월 모의고사에서 문학을 7문제나 틀리고 5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었다. 그런데, 이후 이 책에 쓰인 대로 나랑 같이 감상 능력을 높이는 공부를 하고, 9월 모의고사 문학을 1개 빼고 다 맞았다. 물론 비문학을 푸는 데 시간이 걸려서 등급은 3등급이 나오긴 했지만, 확실한 발전이었다.

질문
09

김지수 | 재수

Q. 국정원 문학편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 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A. 일단 뒤 ‘적용편’을 읽으면서, 이제까지 내가 말한 ‘내면세계 공감’과 ‘이미지화’를 하려고 해본다. 물론 처음이기에 어설픈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이후 뒤에 나와 있는 해설을 본다. 내가 해설에 1등급들은 어떻게 감상을 하고, 문제를 푸는지 적어 놓은 걸 보면서 네가 놓친 부분을 깨닫는다. 이걸 반복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처음에’ 너 스스로 문제를 풀 때, ‘이 화자의 내면세계는 뭘지’, ‘이 인물의 내면세계는 뭘지’, ‘이 시의 화자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며 이 시를 쓴 건지’ 혼자 많이 고민해 보고 해설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너도 해설을 보면서 깨닫는 게 많을수록 성적 향상이 빠르다는 것에는 동의할 것이다. 해설을 보면서 깨닫는 게 많아지려면, 아까 ‘기출 볼 때 주의할 점’에서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끈질기게 내면세계 공감, 이미지화를 해보려고 노력한 뒤 해설을 봐야 한다. 또 선택지 하나하나에 정확히 해설을 하려고 노력한 뒤 봐야 한다. 그래야 깨닫는 게 많고, 성적이 빠르게 오른다. 네가 5개를 고민하고 10개의 해결책을 받으면, 네가 고민하던 5개에 대한 해결책만 머리에 남는다. 그런데, 네가 스스로 10개를 고민하고 10개의 해결책을 받으면 10개의 해결책 모두가 머리에 남는다. 나는 10개의 해결책을 준비했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해설을 보느냐는 네 몫이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책을 2, 3일 만에 끝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 ‘적용편’에서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시 파트를 풀고 해설을 보면서 어떻게 읽었어야 했는지 깨달았다면, 다음 장을 바로 읽지 말고, 스스로 다른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 깨달음을 확인해 보라. 현대 시 파트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에 있는 현대 시 10개를 스스로 읽어본다. 그러면서 내가 해설에서 했던 말이 더 구체적으로 이해될 거고, 또 해설을 읽으며 얻은 깨달음이 강하게 각인될 것이다.